



석전 박한영 스님은

- 1870년 전북 완주군 초포면 조사리서 출생
- 1886년 고성 신계사에서 금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 1890년 장성 백양사 운문암의 환응 스님에게 4교 사사
- 1892년 순천 선암사에서 대선법계 품수
- 1895년 순천 선암사에서 중덕법계 품수
- 1896년 장성 백양사에서 대덕법계 품수
- 1908년 만해, 금파스님과 불교개혁 유신 관련 토론
- 1910년 만해 스님 등과 이회광의 매종 행위 저지 위해 임제종 발기
- 1911년 순천 송광사 승려대회서 임제종 탄생
- 1913년 월간 해동불교 창간
- 1915년 장성 백양사에서 대교사법계 품수
- 1919년 이종욱과 함께 인천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국민대회 불교계 대표로 참석, 한성임시정부 발족에 참여
- 1921년 불교유신회 의장 선임
- 1929년 조선불교승려대회서 교정(敎正)으로 선임
- 1932년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 전신) 교장 선임
- 1945년 총독부 사찰령과 조계종총본사태고사법 등 폐지에 적극 가담
- 1946년 기미독립선언기념전국대회준비위 부회장 선임
- 1948년 정음 내장사서 세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



10월 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석전 박한영 축전 개막식에서 송광사를 비롯한 각 사찰 합창단이 연합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석전 스님 헌가와 헌시 등이 선보였다.



500여 대중이 스님의 원력을 잇기를 기원했다.



8일 동국대 도서관서 열린 유품전 테이프커팅



석전 스님 유품중 시화서책

근대 불교 최고 지성...석전 스님 선양 시작되다

“밥끼 스며드는 죽음을 알게되면 늙는 것도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네. 죽음을 알고나면 지혜롭게 사는 일만 오롯이 남아 오히려 조용하게 래평한 시간을 보낼수 있나니”

- 석전 박한영 스님이 육당 최남선에게 한 법문 일부

개화기 한국불교계 최고 지도자였던 석전 박한영(石顛 朴漢永; 1870~1948, 법명 정호) 스님을 선양하는 ‘석전 박한영 축전’이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동국대 본관을 비롯한 교내 일대에서 열렸다.

석전 스님은 일제 시대와 해방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조선불교교정(현 종정) 역임한 당대 최고의 불교계 지도자다.

또 동국대 전신인 불교고등강숙 속사, 중앙학림 및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며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석전

스님의 제자로는 통합종단 제2대 종정인 청담 스님과 운허·운기·운성·청우·남곡·서경보 스님을 비롯해 신석정·서정주·조지훈 등이 있고, 위당 정인보,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벽조 홍명희 등이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육당 최남선은 존경하고 흠모하는

동국대 10월 8일 석전 축전 개막...19일까지 유품전시전 등 개최

석전 스님의 철수를 기념해 출판한 <석전 시초>(1940)를 통해, 석전 스님이 지은 420여 수의 한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10월 8일에는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축전은 석전 박한영의 시문학 강연회·시문학 연구 학술대회를 비롯해 중앙도서관 유품전시전 개막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각계의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졌다. 불교성악가 모임 LMB 싱어즈는 스님을 기리는 노래 ‘아 석전 큰스님’을 발표해 좌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아, 석전 큰스님’은 홍신선 동국대 교수가 작사, ‘그리운 금강산’으로 유명한 최영섭 씨가 작곡한 곡이다.

이러 내장사 벽력암 회주 대우 스님의 헌시 ‘등불로 살아있는 석전 스님’ 낭독이 이어졌다.

이러 내장사 벽력암 회주 대우 스님의 헌시 ‘등불로 살아있는 석전 스님’ 낭독이 이어졌다. 석전 박한영 축전공동위원장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영재교육을 통한 불교개혁과 민족생애에 혼신의 힘을 바쳤던 선지식”이라고 스님을 평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밀은 스님은 “석전 스님은 불교계 뿐만 아니라 문화

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근대 고승이었다”며 “동국대에 스님을 기리는 문구 하나 없음을 스님의 위대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행사가 스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선사 주지 해자 스님과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같은날 동국대 도서관에서 열린 유품 전시전에는 문사철에 모두 능했던 석전 스님의 다양한 저술활동을 비롯해, 스님이 남긴 헌시 등이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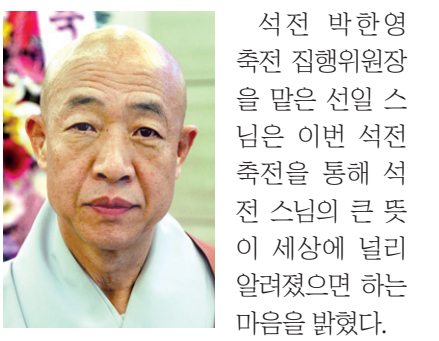
전시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스님의 유품을 보며 스님의 애국혼과 교육열을 느꼈다.

이날 전시전을 참관한 김동수 학생(24)은 “동국대에 만해 스님 관련 시설은 많아 만해 스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석전 스님도 관련 시설과 행사가 없어 스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 기회로 스님에 대해 알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com

“석전 스님에게서 불교 미래 읽어”

석전 박한영 축전 집행위원장 선일 스님



석전 박한영 축전 집행위원장을 맡은 선일 스님은 이번 석전 축전을 통해 석전 스님의 큰 뜻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을 밝혔다.

선일 스님은 “오늘날 석전 스님의 계율 의식과 학문에 대한 앞선 생각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강화와 위상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일 스님이 석전 스님 선양사업에 나서게 된 것은 1976년 선일 스님이 고창 선운사로 출가하면서 부터였다.

스님은 당시 은사 운기 스님으로부터 ‘출가자라면 마땅히 석전 스님의 행리를 닦아야 한다’고 들으며 수학했다. 운기 스님은 석전 스님의 법제자로 선일 스님은 석전 스님의 손산좌 백이다.

스님은 “처음 강연회만 개최하려 했는데 고창 선운사와 군산 동국사, 그리고 동국대 도서관 등이 ‘소장자료를 제공해 유품전을 열겠다’고 하는 등 참여 의사를 밝혀와 축전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석전 스님에 대한 조명이 없었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지내셨지만 만해 스님에 비해 동국대 내에서도 관심이 부족했다”며 “동국대에서 여러 기관이 함께 축전을 연 만큼 향후 근대 최고 고승으로서 스님의 면모를 살펴 불교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가 지속마련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교육·독립운동 등 선교 겸비한 선지식”

학술세미나서 석전 스님의 불교개혁가 모습 조명

“교육을 진흥시키면 마땅히 불도(佛道)를 이루리라”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미래를 준비했던 석전 스님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구도자로서 법통 등을 밝히는데 치우쳐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600여 수가 넘는 한시를 남긴 정도로 뛰어났던 시승으로의 면모와 함께 불교언론인, 개혁가로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자리가 마련돼 대중의 관심을 하나로 모았다.

홍신선 前 동국대 교수는 ‘석전스님의

인물과 사상’ 발표를 통해 석전 스님의 면모는 세가지 측면에서 위상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불교유신운동가로서의 면모, 특히 잡지 발행과 경전 간행에 남달리 신경 썼던 부분과 함께 불교교육의 선구자로서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 교수는 “불교유신운동가로 일본 조동종과 합종운동에 대해 임제종 운동으로 맞서는 한편 사원에 사장된 경전을 인간토록

했으며 근대 서구학리 수용을 통해 불교개혁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스님이 전개한 <조선불교월보> 등 잡지발행은 당시 한국불교의 중요한 대중화 사업이었다”며 “문학에도 힘을 써 조종현, 서정주, 조지훈 등 불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제자들 배출해냈다”고 말했다.

김상일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는 이날 석전 스님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석전 스님이 그동안 한성임시정부의 13대 대표를 지낸 독립운동가로만 알려져 있는데 미군교민기관지인 신한민보 등에 따르면 1919년 한성임시정부 제2차 내각 및 상의원 조지 등에서 독립선언

서를 공포하고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한성임시정부에 석전 스님의 이름이 명시돼 있을 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며 “지암 스님이 한성임시정부에서 실질적인 산파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석전 스님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도 있는 대목으로 최고의 지성인이자 해방될 때까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민족지사로서 스님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와 이병주 前 동국대 교수는 스님의 선시일어한 삶과 그로 인한 기행시 부분의 창작 등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석전 박한영 축전위원회

현대불교 창간 18주년을 축하합니다

- 고문 : 월운, 밀운, 해성, 현성, 암도, 해산, 재곤, 해남
- 자문위원 : 동광, 일면, 지선, 보선, 대우, 법현, 법철, 범여, 철산, 동명
- 공동위원장 : 동국대학교 정각원, 봉선사, 선운사, 도선사, 대흥사, 백양사 각 주지스님
- 집행위원장 : 선일
- 축전위원 : 선운사, 봉선사, 백양사, 대흥사 각 말사 주지스님

혼돈의 역사속에서 고고히 한민족의 정신과 불교를 지키며 살아오셨던 우리의 석전정호 큰스님을 기리기 위한 ‘석전 박한영 축전’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석전스님 유품전 (10월 19일까지)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실
 석전 박한영 축전위원회 02)764-1380 E-mail : iambuddha@hanmail.net